

敦煌本 『傷寒論』에 관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¹ ·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²
박시덕¹ · 신상우² · 박종현^{1,*}

The Study on the Donhwang Manuscript[敦煌本] 『Sanghallon(傷寒論)』

Park Si-deok¹ · Shin Sang-woo² · Park Jong-hyun^{1,*}

¹Dep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eagu Haany University

²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It is generally called that the Donhwang Manuscript[敦煌本] 『Sanghallon(傷寒論)』 is all the series of documents relating to the 『Sanghallon(傷寒論)』 included in one of the testaments, which was, in 1900, originally found in the Janggyeong hole[藏經洞], Makgo cave[莫高窟], Donhwang(敦煌), Gamsuk province[甘肅省]. The consecutive numbers of the Manuscript are S202 and P3287, the former is called the 『Sanghallon(傷寒論)』 A-Manuscript[甲本] and the latter consists of the 『Sanghallon(傷寒論)』 B-Manuscript[乙本] and the 『Sanghallon(傷寒論)』 C-Manuscript[丙本]. The Donhwang Manuscript is a type of a hurt book, but not a complete form of a book.

As the research conducted, it has been proven that the Donhwang Manuscript 『Sanghallon(傷寒論)』 has the academic values as mentioned below.

First, it is highly valuable to inter-related study and revise the 『Sanghallon(傷寒論)』. Second, it is one of circumstantial evidences to have various kinds of versions of the 『Sanghallon(傷寒論)』. Third, its findings somehow wipes out arguments concerning with identifying authors of the 『Sanghallon(傷寒論)』, 『Sanghanrye(傷寒例)』 and the 『Sanghallon(傷寒論)』, 『Byeonmaekbeop(辨脈法)』. Fourth, it has turned out that the existing 『Geumgweokhamgyeong(金匱玉函經)』 is not a forgery, but one of imparted versions of the 『Sanghallon(傷寒論)』.

In conclusion, it c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discovery of the Donhwang Manuscript 『Sanghallon(傷寒論)』 enables to arrange and revise the 『Sanghallon(傷寒論)』, and it has provided researchers with critical evidences about ascertaining many kinds of different versions of the 『Sanghallon(傷寒論)』. Moreover, we can also find the great contribution of this findings which could clarify various non-proven arguments within many experts and researchers.

Key Words : Donhwang Manuscript[敦煌本], Sanghallon(傷寒論), Byeonmaekbeop(辨脈法)

I. 序論

* 교신저자 : 박종현, 대구시 수성구 상동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전화 : 053)770-2248. E-mail : moguri@dhu.ac.kr.

『傷寒論』은 東漢 시대 張機의 저작으로 春秋戰國

과 東漢을 거치면서 형성된 醫家의 임상지식과 內經, 難經, 神農本草經 등의 의약경험을 두루 섭렵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유행했던 疫疾인 傷寒病과 일반 雜病을 직접 治療하고 경과를 관찰하면서 治法과 方藥을 研究하고 기록한 臨床醫案類의 서적으로¹⁾. 漢나라 때 세상에 나온 이래 여러 차례의 전쟁을 겪으며 망실되었는데, 晉나라 때 王叔和가 정리하였고, 宋나라 때 林億 등이 정리하여 『傷寒論』, 『金匱要略方論』, 『金匱玉函經』 세 책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金代 無己가 처음으로 傷寒論에 체계적으로 주석을 달아 注解傷寒論을 지었으나 宋代에 이미 없어졌고, 현존하는 것은 明清대의 판각본이다²⁾.

『傷寒論』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오래지 않아 散逸되고, 긴 세월을 내려오면서 경학자, 수집가들이 끊임없이 발견, 정리, 간행하여 그 판본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傷寒論』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와 문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텍스트의 원형과 관련한 다양한 판본학적 논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1900년대 초에 敦煌 莫高窟 藏經洞에서 발견된 다량의 敦煌遺書 중 『傷寒論』 殘卷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傷寒論』 판본으로 보고 “敦煌本『傷寒論』”이라고 칭한다. 敦煌本『傷寒論』은 필사된 연대 상, 그리고 발견되기 전까지 한번도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傷寒論』의 역사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傷寒論』과 관련한 논란을 일부 불식시킬 만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필자는 敦煌本『傷寒論』의 진모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다.

먼저, 敦煌遺書와 그 중의 의약관련 문헌들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아직 생소한 敦煌遺書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 그것이 한의학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상기코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제인 敦煌本『傷寒論』의 명칭, 내용

및 발견 경위, 보존 현황 및 필사 연대 등에 관해 서술하였다. 또한, 敦煌本『傷寒論』의 조문에 대해 해석과 동시에 宋本『傷寒論』, 『金匱玉函經』, 成本『傷寒論』과 일일이 대조하여 校勘을 하고³⁾ 학술적 가치를 고찰하였다.

II. 本 論

1. 敦煌遺書에 대한 소개

고대 동서양의 교통, 무역, 문화교류의 요지로서 실크로드의 통로였던 敦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꼽힐 만큼 귀중한 문화예술의 보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명학으로서 국제성을 띤 학문 분야, 즉 ‘敦煌學’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敦煌學은 敦煌遺書, 敦煌石窟藝術, 敦煌學 이론이 위주가 되고 敦煌 역사지리까지 연구대상으로 삼는 한 부류의 학문을 가리키는 데⁴⁾, 이 가운데 敦煌遺書는 주로 1900년에 藏經洞에서 발견된 대량의 遺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⁵⁾.

그 안에는 서기 3세기에서 11세기까지의 종교문헌, 사회문서, 지수 등 진귀한 유물 수 만여 점이 잠들어 있었다. 이 발견은 전 세계의 학자들을 놀라게 하였고, 이들 문서를 현재 학계에서는 敦煌遺書라고 부르고 있다. 敦煌遺書의 내용은 兩晉으로부터 北宋까지의 약 천년간의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학, 예술, 천문지리, 의학, 인쇄 등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총망라하고 있어, “敦煌學”이라는 신흥학문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25개 나라와 지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敦煌遺書의 발견 및 현황

敦煌學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의 탄생에 결정적

1) 申尙玟, 金植汎. 『傷寒雜病論』의 診斷體系에 關한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8. 12(1). p.1.
2)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p.414-415.

3) 敦煌本『傷寒論』원본과 해석, 校勘記는 본 학회지에 수록하지 않았다.
4)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48.
5)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257.

인 역할을 한 것은 1900년 敦煌 莫高窟 제17호굴(藏經洞)에서 발견된 敦煌遺書이다.

藏經洞에서 발견된 유서의 총수는 5만여 두루마리에 달한다. 그 중 절대다수가 필사본이고, 아주 적은 수가 목각본이다. 장서의 내용은 불경이 가장 많고, 도교경전, 經·史·子·集의 四部書⁶⁾, 詩·詞·曲·賦·통속문학·중국 이외의 고대언어·고대종교·圖經⁷⁾·方志⁸⁾·醫藥·曆書·사회경제 자료 등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사원의 계약서·장부·호적·신도의 명찰 등 경제 역사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⁹⁾ 藏經洞의 유물들은 일찍이 약탈로 인해 수 만점이 해외로 유출되어, 현재에는 10여개국의 박물관과 도서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다. 敦煌遺書는 1900년 처음으로 17호굴인 藏經洞이 발견되고 그곳에서 문건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이래, 1906년 5월 헝가리 태생의 영국인 고고학자 스타인(Mark Aurel Stein, 1862~1943)이 처음 문적에 손을 댔고, 그것의 상당 분량을 영국으로 불법으로 가져온 뒤 바로 프랑스의 한학자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로 이어졌고, 다시 일본, 러시아, 미국의 탐험 및 발굴대들이 이곳의 문물을 약취해 갔다.¹⁰⁾ 이렇듯 敦煌遺書는 제국주의가 중국 침탈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대에 발견되어 수많은 유서들이 제국주의 국가의 소위 '학자'나 '탐사단'이니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도난당하였고, 그 일부분은 국내 관료주의와 개인들이 소장하게 되었다.¹¹⁾

2) 敦煌遺書 중 한의약 관련 문헌과 연구 현황
한의약은 敦煌石窟藝術과 敦煌遺書 중에서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량의 벽화, (채색한) 소조, 도안, 책의 머리말, 서법 및 藏經洞의 대량 遺書중에 한의약과 관련된 상당한 수량의 기록과 묘사가 있다.¹²⁾ 특히 敦煌遺書 중에는 진귀한 의약 관련 문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연구와 발굴, 정리를 한다면 한의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들을 메울 수 있다. 또한 고대의 것이기는 하지만 어떤 자료들은 지금 되살려 쓴다면 현대의학에서도 응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¹³⁾ 敦煌遺書 중 한의약 관련 문헌들을 분석해보면 陰陽五行學說, 臟腑理論, 脈學, 診斷,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등의 임상학과, 鍼灸, 醫方, 本草學, 醫事雜論, 古藏醫藥, 道教醫學, 佛教醫學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¹⁴⁾

그 세부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¹⁵⁾, 이하 돈황 두루마리 편호 P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펠리오가 훔쳐간 6038건의 돈황 한문 두루마리의 편호이고, 돈황 두루마리 편호 S는 영국 런던 박물관에 소장된 스타인이 훔쳐간 2500종의 돈황 두루마리(티벳어 두루마리는 포함하지 않음)의 편호이다.¹⁶⁾

※ 醫理類著作

張仲景『五臟論』4종 (P·2115, P·2378, P·2755, P·5614)

『明堂五臟論』(P·3655)

『傷寒論·傷寒例』(P·3287)

『輔行訣藏府用藥法要』(편호 없음)

※ 古藏醫藥類

『火灸療法』2종 (P·T127, P·T1044)

6) 六朝時代に 비롯된 서적 분류법. 經은 經書, 史는 역사책, 子는 『孟子』, 『老子』 등의 子書, 集은 詩, 賦 등의 集을 말한다. 隋나라 때에는 經, 史를 甲, 子, 書를 乙, 역사책을 丙, 集을 丁으로 하는 4部로 나누었으나, 隋나라 때에 이르러 역사책과 子, 書의 순서가 바뀌어, 그 후 經, 史, 子, 集의 순이 한문 서적의 분류법으로 쓰이게 되었다.

7) 山水의 地勢를 그림으로 설명한 책

8) 한 地方에 관한 기록

9)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p.52-53.

10)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27.

11)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247.

12) 叢春雨. 敦煌中醫藥學及其文獻價值. 絲綢之路. 1996. (4). p.29.

13)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409.

14) 叢春雨. 談敦煌古醫籍的學術成就和文獻價值. 中醫文獻雜誌 4호. 1997. p.1-3.

15) 문서의 명칭 및 편호는 『敦煌中醫藥全書』에 의함.

16) 叢春雨. “八法”与敦煌遺書古醫方. 上海中醫藥雜誌. (6). 1997. p.38.

- 『吐番醫療術』2卷 (India office 56-57, P·T1057)
『古藏文灸法圖』(P·18·017)
- ※ 鍼灸類著作
『灸法圖』2卷 (S·6168, S·6262)
『新集備急灸經』2卷 (P·2675)
『灸經明堂』(S·5737)
『人神日忌』(P·3247)
- ※ 診法類著作
『素問·三部九候論』(P·3287)
『靈樞·邪氣臟腑病形』(P·3481)
『傷寒論·辨脈法』2卷 (S·202, P·3287)
『平脈略例』3卷 (S·5614, P·2115, S·6245)
『五臟脈候陰陽相乘法』2卷 (S·5614, S·6245)
『占五臟聲色源候』2卷 (S·5614, S·6245)
『玄感脈經』(P·3477)
『青烏子脈訣』(P·3655)
『七表八裏三部脈』(P·3655)
『不知名氏辨脈法』1 (P·3287)
『不知名氏辨脈法』2 (P·3287)
『脈診法殘片』(S·181)
- ※ 本草類著作
『新修本草·序例』(편호 없음)
『新修本草·草部·卷十』(P·3714)
『新修本草』2卷 (P·3822, S·4534)
『食療本草』(S·76)
『本草經集注第一·序錄』(龍·530)
『殘本草』(S·5968)
- ※ 醫方類著作
『雜證方書』10卷 (P·2565, P·2662, P·26622, P·2882, P·3144, P·3596, P·3731, P·3885, S·3347, S·5435)
『王宗無忌單方』(P·2635)
『單藥方』(P·2666)
『配方選藥法』(P·2755)
『脚氣, 瘧病方書』(P·3201)
『雜療病藥方』(P·3378)
- 『頭, 目, 產病方書』(P·3930)
『黑帝要略方』(P·3960)
『醫方殘片』(P·5549)
『療胸痹心痛醫方殘片』(S·079)
『治病藥名文書』(S·1467)
『簡便醫方方書』(S·3395)
『美容方書』(S·4329)
『求子方書』(S·4433)
『配伍組方法要』(S·5968)
『服食養生方書』(S·6052)
『無名方書目錄』(S·6084)
『婦科單藥方書』(S·61772)
- ※ 道醫資料
『療服石醫方』(편호 없음)
『服氣休糧及妙香丸子方』(P·3043)
『道家養生方』(P·4038)
『絕穀仙方』(S·2438)
『殘辟穀方』(S·5795)
『道家合和金丹法』(P·3093)
- ※ 佛醫資料
『佛家醫方』(P·2665)
『佛家辟穀方』2卷 (P·2637, P·2703)
『佛家香浴方』2卷 (P·3230, S·6107)
『佛家養生方』(P·3244)
『佛家語喻醫方』(P·3777)
『佛家療病催產方』(P·3916)
『佛家神妙補心丸』(S·5598)
- ※ 醫事雜論類著作
『茶酒論』4卷 (P·2718, P·2875, S·406, S·5774)
『伍子胥變文』중의 藥名詩 2卷 (P·2794, S·328)
『治病所須』(P·2215)
『拋暗號』(P·2305)
『天地陰陽交歎大樂賦』(P·2539)
『勤善經』(P·3036)
『陰陽書』중 有關한 7종의 死病 (S·1468)
『伏類書·醫卜』醫家董奉郭玉傳(S·2072)

- 『救諸衆生苦難經』중의 10종 死病 (S·3417)
- 『百一物本』중의 의용약품(S·4636)
- 『佛說痔病經』중의 의학병명(S·5379)
- 『類書』상 잔존하는 의학술어(S·5725)
- 『某僧向大德乞藥狀』(S·5901)
- 『搜神記』(羅氏017)

최근 1세기 동안 敦煌石窟의 古醫藥文獻은 국내의 敦煌學, 醫藥史, 民族史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주목하였고, 그 수가 萬을 헤아리는 六朝, 隋, 唐代의 寫本과 刻本 서적의 의약문헌에 대해 校勘, 考證, 翻譯을 진행하여 성과가 우수하였다¹⁷⁾.

敦煌醫藥文獻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초기에는 주로 최초 자료의 복제, 부분적인 醫藥 殘卷들의 篇目, 그리고 醫藥 殘卷과 유관한 개별 제목에 대한 연구 방면으로 나타났다. 80년대 이후 이 분야의 연구가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발전적으로 응용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아직 기초 연구 상의 성과만큼은 못하지만 敦煌古醫方의 연구와 응용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⁸⁾.

敦煌遺書 중에 기록된 대량의 한의약 내용은 그 중에 醫方과 유관한 내용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풍부하고 언급이 광범위하여 연구와 응용가치가 있다¹⁹⁾. 敦煌遺書 중 대량의 古醫方을 열람해 보면, 어떤 처방들은 전대 의학의 세상에 전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으나 그 가운데 대다수는 隋, 唐, 五代의 의학가의 경험의방이고 더불어 필사본으로 후인들에게 전해진 것들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²⁰⁾. 현재, 敦煌古醫方의 연구는 ①문헌연구 ②실험연구, ③임상연구로 요약될 수 있다. 敦煌遺書 중의 古醫方은 方劑學을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켰다. 중요한 文獻史料의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연구와 응용 가치도 있고, 한약 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본보기가 되며, 처방 기원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²¹⁾.

실험연구와 임상연구에 있어서 돈황 의료처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것이 현대의학 중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P·2882 殘道經 뒤에 『수염과 머리털 염색법(染鬚及髮方法)』이라는 의료처방이 있는데 이것은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검은 머리카락이 생겨나게 해주는 한의학 처방으로서, 당나라 때에도 이미 백발병을 치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의학의 방법으로 그 약리작용에 대해 분석해보면, 이 처방중의 어떤 한약에 머리카락의 멜라닌 성분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기에 섞여진 약의 납 성분은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화학 염색제에 쓰이는 양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의료 작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이 비방을 임상에 실험하고 있다²²⁾.

기존의 의료처방 이외에 의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돈황유서의 의약문헌을 이용하여 새로운 처방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중에서 ‘萎胃靈 1號’는 바로 감숙중의약대학 王道坤 선생이 돈황유서 의료처방에 근거해 만들어낸 약이다. ‘萎胃靈 1號’는 기를 통하게 해주고 위를 새롭게 해주는 효능을 갖고 있는데, 2년여 동안 만성 위축성 위염에 대해 관찰 치료를 한 결과 유효치료율이 95%이상에 달했다²³⁾.

임상실험과 여러 차례의 관찰 치료를 거쳐, 돈황에서 발굴된 책에서 보이는 의료처방의 조제법은 황달이나 이질·위통·복통 등의 여러 가지 급성중환과 만성중세에 모두 좋은 약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돈황 의료처방을 운용하여 간염·이질·만성위염·급성위장염·급성입파선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고 있다²⁴⁾.

17) 范新俊, 陳蓉, 古今敦煌醫文獻論著目錄, 上海中醫藥雜誌, 1995. (5), p.41.
 18) 李應存, 敦煌醫學中古醫方的研究與應用概況, 甘肅中醫學院學報, 2000. 17(3), p.64-65.
 19) 劉喜平, 敦煌古醫方的研究概況, 中成藥, 2004. 26(1), p.8.
 20) 叢春雨, “八法”与敦煌遺書古醫方, 上海中醫藥雜誌, 1997. (6), p.38.

21) 劉喜平, 敦煌古醫方的研究概況, 中成藥, 2004. 26(1), pp.8-9.
 22)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p.418-419.
 23)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419.
 24)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419.

3) 敦煌遺書 중 『傷寒論』 관련 문헌

현재 알려진 敦煌遺書 중의 醫經 잔권은 10여종인데, 『傷寒論』도 그 중 하나이다. 편호 P·3287, S·202 중의 일부가 바로 『傷寒論』의 내용을 직접 담고 있으며, 이를 특별히 敦煌本『傷寒論』이라 칭한다. 『傷寒論』의 기원 중 하나인 『湯液經法』을 기초로 한 『輔行訣藏府用藥法要』도 『傷寒論』과 연관을 가진다. 한편, 『傷寒論』의 著者인 張仲景이 지었다는 4種의 『五臟論』이 있다. 이는 臟腑學說을 위주로 한 의서의 한 종류로 『耆婆五臟論』, 『明堂五臟論』과 더불어 현존하는 최고의 五臟論類 저작이다²⁵⁾. 그러나 이는 또 隋唐시기의 저작으로 간주되며²⁶⁾, 본 문헌이 광범위하게 유전되고 전사되는 과정 중에서 그 가치를 드높이고자 다른 사람에게 탁명을 하여 사람들이 진기하게 여기고 소중히 하도록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²⁷⁾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敦煌本『傷寒論』개요

1) 敦煌本傷寒論의 명칭, 내용 및 발견 경위에 관한 개요

“敦煌本『傷寒論』”은 본시 1900년 감숙성 敦煌 막고굴 藏經洞 내에서 발견된 『傷寒論』 본문 관련 문서를 통칭하는 것으로, 그 編號는 S·202와 P·3287이며, 前者는 또한 『傷寒論』甲本, 後者는 『傷寒論』乙本과 丙本으로 부른다. 敦煌本『傷寒論』은 완결된 형태가 아닌 殘卷의 형태로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傷寒論』甲本은 宋本『傷寒論』卷一의 “辨脈法” 34조 가운데 31조를 수록하고 있으며, 맨 처음 1조문이 결손되어 있고 맨 마지막 2조문이 결손되어 있는 상태다. 『傷寒論』乙本은 宋本『傷寒論』卷二의 “傷寒例” 중의 3조문을 수록하고 있다. 『傷寒論』丙本은 『傷寒論』卷一 “辨脈法” 중의 1조문을 수록하고 있다²⁸⁾.

한편, 敦煌本『傷寒論』은 첫머리에 서명이 빠져 있어서 학자들 사이에 이 잔권의 명칭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S·202의 경우 羅福頤는 “脈經殘卷”(『西陲古方技書殘卷匯編』)이라 불렀고, 일본인 渡邊幸三은 “傷寒論殘卷” 혹은 “棄脈殘卷”(『日本東洋醫學會雜誌』1957年6期)이라고 불렀다. 이에 대해 『敦煌中醫藥全書』에서는 前者의 경우 “脈經殘卷”이라고 불려 王叔和의 『脈經』과 혼돈하기 쉽고, 後者의 경우 “傷寒論殘卷” 혹은 “棄脈殘卷”이라고 불려 그 명칭 역시 명확하지 못하며 학자들이 연구하고 열람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존 『傷寒論』중의 “辨脈法”의 내용과 기본적으로 같은 敦煌 S·202 잔권을 “『傷寒論·辨脈法』”으로 칭한다고 하였다²⁹⁾. 그러나 『傷寒論版本大全』에서는 이것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타 『傷寒論』판본과 헷갈리기 쉬우므로 敦煌本『傷寒論·辨脈法』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S·202와 P·3287 중의 『辨脈法』은 비록 동일한 잔권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전부 동일한 편 가운데 있으므로 전자는 “之一”이라 칭하고, 후자는 “之二”라고 칭한다고 하였다³⁰⁾.

원래 敦煌 藏經洞은 문물이 큰 재해를 입은 채로 발견되어 여전히 敦煌本『傷寒論』의 재현을 설명할 수 없었다. 1957년에 이르러 영국에서 일부 “S·202” 잔권의 사진을 가지고 돌아와 中國中醫研究院의 魯之俊 원장에게 넘겼고, 이것이 醫史學者인 陳邦賢에게 전달되었으며, 다시 陳可翼, 陳維養 두 교수에게 전해졌는데, 陳可翼 교수는 『註解傷寒論』, 『宋本傷寒論』, 『金匱玉函經』과 대조하여 이 잔권과 『傷寒論·辨脈法』이 기본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아울러 『人民保健』(1959;(5):477)에 “敦煌石室에 舊藏되어 있던 『傷寒論』 辨脈法 殘卷에 관하여(關於敦煌石室 舊藏傷寒論辨脈法殘卷)”라고 기고하여 관심을 끌었다. 이후로, 1984년 馬繼興 연구원이 『敦煌古醫籍考釋』을 출판하였고, 1988년 趙健雄 교수가 『敦煌醫粹』를 출판하였으며, 1994년 叢春雨 원장이 『敦煌中醫藥

25) 王淑民, 龐莎莎. 敦煌吐魯番出土古本五臟論의 考察. 中華醫史雜誌. 1995. 25(1). p.46.
 26) 王淑民, 龐莎莎. 敦煌吐魯番出土古本五臟論의 考察. 中華醫史雜誌. 1995. 25(1). p.46.
 27) 朱定華. 敦煌殘卷醫籍張仲景『五臟論』辨析. 上海中醫雜誌. 1985. (10). p.9.
 28) 佃會. 宋以前『傷寒雜病論』의 流布研究. 山東中醫藥大學

博 1學位論文. 2001. p.53.
 29) 叢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32.
 30)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4.

全書』 및 상관된 논문을 출판하여, 敦煌本『傷寒論』이 증시되고 연구되기 시작할 수 있었고, 아울러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³¹⁾.

2) 敦煌本『傷寒論』의 보존 현황

敦煌遺書는 그 수량, 내용, 시간에서 볼 때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드물다. 또 대다수가 필사본이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인도, 미국, 대만 및 중국도서관 등에 나뉘어 보존되어 있다.

敦煌本『傷寒論』은 영국 대영박물관 도서관 동방사본부와 프랑스 파리 국가도서관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는데, 전자는 스타인이 절도한 것이고 후자는 펠리오가 절도한 것이다.

敦煌本『傷寒論』은 편호 S·202 잔권과 편호 P·3287 잔권 중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 편호 S·202, 즉, Sir Aurel Stein 202는 1907년 영국인 스타인(A·Stein)이 훔쳐간 잔권과 관련된다. 편호 P·3287, 즉, Pelliot Chinois Toven-hovang 3287은 1908년 프랑스인 펠리오(P·Pelliot)가 훔쳐간 잔권과 관련된다.

S·202 잔권은 높이 27.7cm로 103행이 현존하는데 매 행은 22~24자로 일정하지 않다. 묵필 해서체로 필사되어 있고, 처음과 끝이 손상되어 없고 서명과 편명 역시 빠져있다.

P·3287 잔권은 높이 28.5cm로 아래위에 난광 및 행선이 있고, 149행이 현존하는데, 매행은 21~27자로 일정하지 않다. 墨筆로 필사하였고 매절의 첫머리에는 紅筆로 “.” 혹은 “○” 표기를 하였다. 전 7행과 후6행이 빠져 있고, 서명과 편명 역시 빠져 있다. 이 잔권에는 5종류의 古醫籍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32~50행의 내용과 『傷寒論』 중의 “傷寒例”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서로 같고, 제 61~67행의 내용은 『傷寒論』 중의 “辨脈法” 부분과 문자가 기본적으로 서로 같다.

현재 출판된 판본에는,

- ① 1984年 馬繼興 『敦煌古醫籍考釋』 江西科學技術出版社
- ② 1988年 趙建雄 『敦煌醫粹』 貴州人民出版社
- ③ 1993年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學苑出版社

④ 1994年 叢春雨 『敦煌中醫藥全書』 中醫古籍出版社

⑤ 2000年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學苑出版社 등이 있다³²⁾.

3) 敦煌本『傷寒論』의 필사연대

敦煌 藏經洞의 폐쇄시기의 하한이 11세기(1097)보다 늦지 않으며³³⁾, 폐쇄된 이후 1900년대 초 발견되기 전까지 한번도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藏經洞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절대로 1097년 이후의 것일 수가 없는데, 敦煌本『傷寒論』의 필사연대는 확실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敦煌本『傷寒論』이 잔권에 속하고 첫머리도 없고 말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사한 사람의 이름과 필사한 시기 및 필사의 원판본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필사연대는 단지 고증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며, 때문에 논리가 한결같지 않다. 학자들이 敦煌本『傷寒論』의 필사연대를 고증하는 것은 모두 그 잔권 중의 避諱字로 추단한 것인데, 주로 陳垣의 『勸耘書屋叢刻·諱字舉例』, 그리고 陸費墀의 『歷代帝王廟諱年諱譜』 등에 의거하였다³⁴⁾.

전제군주시대에 한국과 중국에서 천자나 부모, 조상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문장에서도 쓰지 않고 피했는데 그것을 避諱라고 한다. 天子나 孔子의 경우 전국적으로 避諱하여 國諱라고 했으며 조상은 한 家門에 한해 避諱했으므로 家諱라고 했다. 避諱는 周나라 때부터 시행돼 唐宋시대에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대체로 闕字와 厥劃, 改字의 가지 방법이 있었다. 闕字는 해당되는 글자를 아예 쓰지 않고 공란, 즉 정사각형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厥劃은 글자의 일부 획을 생략하는 방법으로 唐太宗 李世民的 경우 民자를 氏자로 대치했다. 마지막으로 改字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같은 뜻의 다른 글자로 바꾸는 것이다. 唐太宗 때 世를 代로 바꾼 것이나 蘇東坡가 조부의 이름 蘇序를 피해

32)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p.13-15.
 33) 譚眞. 試論敦煌醫學價值. 中華醫史雜誌. 1992. 22(4). p.225.
 34)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5.

31)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3.

평생 序文을 引文, 또는 敍文이라고 썼던 것이 좋은 예다. 避諱를 범하면 불경죄라 해 엄한 처벌이 따랐다. 淸의 乾隆 때 王錫侯는 字貫이란 책을 썼다가 斬刑을 당했다. 凡例중에서 乾隆의 조부와 부친인 康熙, 雍正의 이름자를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휘자는 문헌의 연대를 고증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敦煌本『傷寒論』3부분 잔권의 필사 연대에 관해서 역시 문장중의 避諱字로 판단할 수 있다.

(1) S·202

S·202는 첫머리와 말미가 모두 잔결이 있다. 宋本『傷寒論』과 대비해 보면 『辨脈法』에 상당한다. 아울러 또한 기본상으로는 全文에 속하고 단지 開頭와 結尾에 少數의 문자가 잔결되어 있다. S·202 전문을 통람하면 “堅”, “中”, “順”의 3字를 피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건의 필사 연대의 하한은 南朝의 梁이전이라고 감정할 수 있다.

淸乾隆 40年 乙未(서기 1775년)에 冬桐鄉縣의 陸費墀가 『歷代帝王廟諭年諱譜』을 저술하였는데, 隋朝에는 楊堅의 “堅”, 楊堅의 아버지 楊忠의 “忠” 및 “忠”과 동음인 “中”자를 피했다고 하였다. “아버지의 諱가 忠이었다. 忠자는 모두 誠이 되었고, 아울러 中자도 피해 內자로 대신하였으며, 中國을 神州라고 칭하였다.” 1928년 新會의 陳垣은 『史諱舉例』를 撰成하여 역대 피휘 관련 사료들을 망라하고 조목조목 상세히 분석하여 避諱學史의 대작을 이루었다. 『史諱舉例』에서 설명하기를, 隋의 諱는 “堅”이고 楊堅의 아버지 楊忠의 “忠” 역시 피하였다. “아울러 中자도 피하여 中은 모두 內로 고쳤고 中史는 內史로 고쳤으며 中牟縣은 內牟로 고쳤다.”(『南北朝諱例』條) 또 이르기 “수문제 아버지의 이름이 忠이다. 아울러 中자도 嫌名이라 피하였다(『禮記·曲禮』의 “禮不諱嫌名”에서 鄭注는 “嫌名은 소리가 서로 근사한 것을 이른다. 禹와 雨, 丘와 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한즉 嫌名을 피한다는 것은 음이 같은 글자를 피하는 것을 말한다. “忠”과 “中”은 음이 같으므로 中자 역시 피하는 것이며, (이를 두고) 嫌名을 피한다고 이른다). 그러므로 『隋書·忠義傳』은 『誠節』이 되었고, ‘允執厥中’을 ‘厥

和’로 고쳤다. 官名, 地名에 中자가 있는 경우도 대부분 內로 고쳤다.”라고 하였다(『囚犯諱或避諱斷爲僞撰例』條). 이러한 논술은 모두 隋代의 문헌이 모두 “堅”, “中”을 피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S·202에는 “堅”자가 반복해서 출현한다. 예를 들면 “必堅”, “大便而堅”, “卽堅”이 각각 한번씩 보이고, “反堅”은 세 번 보이는데, 모두 “鞭” 혹은 “固”자로 바꾸지 않았다. 필사본 중의 “中”자는 계속해서 나오며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下流入陰中 關上尺中 日中愈
 中日發病 中得夜半愈 心中則飢
 胃中 淸邪中上 濁邪中下 陰中邪名曰栗
 使邪中陽 陽中邪 陽中霧露 中焦
 口中氣出 鼻中涕出 腹中痛 등이다.

이상 “中”자는 모두 피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S·202는 결코 隋代에 필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사본은 또한 唐人의 諱도 피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唐代에 필사된 것 역시 아니다. 또 S·202를 조사해보면 “累累如順長竿, 名曰陰結”이라고 해서 “順”자도 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宋本, 成本, 『聖惠方』卷八, 『金匱玉函經』은 모두 “順”을 “循”으로 바꾸었다. 즉 이 필사본이 梁이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史諱舉例』의 “南北朝諱例”條에서 “『梁書』에서는 順陽君을 南鄉이라고 불렀고, 『南齊書』에서는 順자를 대부분 從으로 바꾸었다.” 또 『素問』王冰注本을 조사해보면 “順”자의 거의 대부분이 모두 “從”으로 고쳐져 있다. 王冰이 의거한 저본은 齊, 梁시대 全元起의 『素問訓解』이다. 全氏本 중에 “順”은 모두 “從”으로 바뀌 놓았다. 지금 S·202는 여전히 “順”자를 유지하고 “循”으로 개변하지 않았으므로 이 필사본의 시대적 하한이 반드시 梁武帝이전, 즉 서기 502년 이전이라고 추측된다. 또 『隨書經籍志』“醫方論七卷”의 小注에 이르길 “梁代에 張仲景의 評病要方 一卷이 있다”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 S·202는 『評病要方』一卷일텐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만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하여간 S·202 필사본의 역사는 위로 南朝의 宋, 齊시대까지 소급된다³⁵⁾³⁶⁾.

35)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p.582-583.

이 외의 주요한 견해로 趙健雄은 잔권 중에 血(血), 衄(衄), 薇(薇)등의 글자가 쓰였고, 기타 敦煌 두루마리들과 대조해 볼 때 필사시기는 唐代라고 고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³⁷⁾

陳可冀 등은 隋나라 말기에서 唐나라 초기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중국이 서역을 통한 교통의 번성과 해서어의 사용으로부터 잔권이 敦煌으로 전입된 시간문제를 논증하였다. 따라서 교통의 번성은 필연적으로 문화의 교류를 동반한다. 중국은 “한대로부터 敦煌과 서역을 경유하는 통상과 문화교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다만 잔권이 일찍이 한나라 때에 敦煌으로 전입되었다는 말은 뻔히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글자체 상으로 볼 때 잔권의 자체는 楷書이고 漢나라 때는 오히려 禮書가 성행했다. 魏晉南北朝에 이르러 비록 이미 楷書를 사용하였지만 그 서역과의 교통한 정황으로 볼 때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이다.” 따라서 “잔권은 隋나라 말기내지 唐나라 초기에 敦煌으로 전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동시에 敦煌石室에서 발견된 문건 중에도 唐代 초기의 것이 가장 많은 것도 상술한 것의 가능성을 설명한다.”(『人民保健』 1959年 第5期에 보인다). 馬繼興은 『敦煌古醫籍考釋』에서 주로 문장 중의 피휘에 쓰인 글자를 통해 隋代 이전으로 고증하였다.

(2) P-3287

敦煌『傷寒論』잔권 乙本과 丙本の 편호는 P-3287이다. 이 두 필사본에서 사용된 피휘자로 볼 때 필사연대의 하한은 唐 高宗 李治의 치세기이다.

『傷寒論』잔권 乙本은 宋本『傷寒論』의 “傷寒例第三”중의 일부 문장과 엇비슷한데 사용된 피휘자에는 “鞞”, “世”, “治”가 있다.

P-3287 『傷寒論』乙本에 “自非大滿人實腹革印者, 必有燥屎也”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鞞”의 음은 “鞞”으로 이것은 “堅”의 피휘자이다. 隋代에 “堅”을 피하여 대신 쓴 글자에 “固”와 “鞞”이 있었다. 『廣韻』에 “鞞은 五更切이다”라 하였고, 『廣韻』에 “鞞

은 五剛切이다”라고 하였다. 鞞의 본음은 昂으로 “鞞”자와 서로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필사본에서는 “鞞”자를 “鞞”자로 대체하여 楊堅의 諱를 피하였다. 그런데 당나라 사람들은 수나라의 諱를 피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당나라 사람이 필사한 두루마리에서 도리어 “鞞”자가 출현하는가? 이는 敦煌『傷寒論』잔권 乙本이 수대부터 전해 내려온 것으로 수나라 사람들이 이 문서를 필사하였을 때 이미 “鞞”자로 써 놓은 것을 당나라 초기에 수나라 사람들이 전해온 필사본을 사용해서 다시 傳寫하였기 때문에 “鞞”자를 그대로 남겨 두게 되었다. 이 “鞞”자는 宋本『傷寒論』중의 “鞞”자가 출현하는 시대와 배경을 고증하는 데에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우리들은 避諱學上으로 볼 때 “鞞”을 피하는 諱字이고 수대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긍정할 수 있으나 물증이나 원시 필사본의 모양을 전혀 볼 수 없고 현재는 당나라 초기 사람들이 필사한 敦煌本『傷寒論』乙本 중에서 “鞞”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수나라 사람들은 확실히 “堅”자를 “鞞” 또는 “鞞”으로 바꿔 썼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P-3287 『傷寒論』乙本에서는 당 태종 이세민의 “世”를 피하여 “世”라고 하였고, 당 고종 李治의 “治”를 피해 “治”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世”자에는 빠진 획이 있고, “治”자는 맨 마지막 한 획을 뺐다. 중국 봉건사회의 피휘 방법에는 대체로 4종류가 있다. 첫째, 글자를 바꿔서 피휘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順”을 “從”으로 바꾸고 “堅”을 “鞞”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류이다. 둘째, 한 글자를 비워서 피휘를 하는 방법이다. 『史諱舉例』卷一에 말하기를 “『南齊書』에서는 양무제 부친 順의 諱를 피하여 모든 順자를 從으로 바꾸고 順이라는 명칭을 만나면 공백으로 처리하였다. 汲古閣本에는 오히려 옛날 그대로 두었다. 豫章文獻 王崑傳宋從帝의 아래에, ‘北雍本에는 順으로 해 놓았고 宋本에는 피하였다.’라고 注가 되어 있고, 그 아래 載崑上武帝啓에는 ‘前侍幸□宅’이라는 말이 있는데, □ 아래 注에 ‘順之, 宋本諱’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幸蕭順의 집이다. 그러므로 그 글자를 공백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지금의 판본들은 모두 直書이므로 『南史』를 근거로 고쳤다.”라고 하였다. 셋은

36)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5.
37) 趙健雄. 敦煌醫粹.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p.265.

어떤 한 획을 없애버림에 의해 피휘를 진행하였다. 『史諱學例』卷一에 말하기를, “피휘할 때 결필하는 방법을 쓴 레는 당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였다. 진씨는 唐朝에 碑刻 중의 避諱缺筆字를 근거로 증명하고, 避諱缺筆이 당나라 고종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唐 高宗 乾封 元年(서기666년)의 『贈太師孔宣公碑』에 “愚智齊派”라는 문구가 있는데 “泯”이 “派”라고 쓰여 있다. 이것이 唐碑에서 避諱缺筆이 처음으로 나타난 경우이며 이후 缺筆하는 글자가 점점 많아졌다. 乾封 元年 『于志寧碑』에 “世武”는 世字가 “卍”로 쓰여 있다. 儀鳳 2년(서기677년) 『李勣碑』는 본명이 世勣인데 피휘 때문에 단지 勣이라고만 이름 하였고, 王世充의 “世”자는 특별히 중간의 일획을 빠뜨렸다. 萬歲 登封 元年(서기696년) 『封祀壇碑』에는 “葉”자가 “荼”으로 써 있다. 陳氏는 唐代의 刻石碑를 연구한 이후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내었다. “피휘의 결필법은 당나라 고종 때 발생하였다.” 이 결론과 P.3287 『傷寒論』乙本에서 피휘용 글자가 서로 부합된다. 『史諱學例』卷八 『唐諱例』에서는 또 “당시의 피휘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缺筆의 예가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이러한 예가 있다면 고적의 문자들이 바뀌는 바가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石經을 만들 때 缺筆은 많고 改字는 적어 경전의 원본이 이에 힘입어 보존되었다.”고 하였다.

피휘하는 네 번째 방식은 글자의 독음을 바꿔서 피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단지 의논만 있었을 뿐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敦煌本『傷寒論』乙本에 “凡兩感俱病者, 治則有其先後也”, “世士唯知翕沓之榮”이라 하였는데, 이 안의 “治”와 “世”는 모두 결필된 피휘자이다. 그러나 P.3287은 당 예종 李昞의 “昞”자는 피하지 않았다. 당 예종조에는 무릇 “昞”, “但”, “坦”, “竄”은 모두 반드시 피휘를 했다. 예를 들어 “昞”자는 “明”자로 바꾸었다. 敦煌本『傷寒論』乙本과 『素問』은 바로 이어 쓰여 있으며, “凡診脈之法常以平旦”, “岐伯曰, 所以常用平旦者”라는 구절이 있는데, “昞”자를 改字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缺筆하지도 않았다. 『傷寒論』乙本이 필사된 시대적 하한은 당나라 고종조 임을 알 수 있다.

敦煌本『傷寒論』丙本에는 피휘자가 전혀 출현하지 않는다. 단지 이 편과 敦煌本『傷寒論』乙本이 동일한 두루마리 상에 있기 때문에 敦煌本『傷寒論』丙本の 필사연대 역시 당나라 고종의 시대이다³⁸⁾.

이 외의 주요한 견해로 趙健雄은 『敦煌醫粹』에서 唐代 무측천 시대(684~701년)로 추단하였고, 叢春雨는 『敦煌中醫藥全書』에서 필사본 중에서 당태종과 당고종의 휘자를 피하고 당예종의 휘를 피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당고종 이치의 재위기간, 즉, 서기 650~683년경으로 보았다.

III. 考 察

이상 敦煌本『傷寒論』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들을 근거로 먼저 敦煌本『傷寒論』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敦煌本『傷寒論』은 『傷寒論』의 연구와 교감에 귀중한 자료이다.

敦煌本『傷寒論』의 발견은 의심할 여지없이 『傷寒論』을 연구하고 교감하는 데에 지극히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敦煌本『傷寒論』의 필사 연대가 비교적 이르고 1000여년 중에 敦煌本『傷寒論』과 상등한 판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敦煌本『傷寒論』은 일부의 독립적인 『傷寒論』 판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³⁹⁾.

현존하는 『黃帝內經』, 『傷寒論』, 『鍼灸甲乙經』, 『證類本草』, 『本草綱目』 등의 醫籍은 모두 宋代 이후의 판각본인데, 敦煌醫學卷子는 대부분 隋唐의 필사본으로 옛것과 비교하여 원형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세상에 전하는 많은 古醫藥典籍의 校勘에 믿을 만한 근거를 제공한다⁴⁰⁾.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본 두루

38)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583-585.

39)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6.

40) 譚眞. 試論敦煌醫學價值. 中華醫史雜誌. 1992. 22(4). p.226.

마리의 문장은 傳世本인 『傷寒論』의 교감과 연구 활동에 상당히 높은 학술적 가치와 역사 문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중시하고 연구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⁴¹⁾. 敦煌 莫高窟 藏經洞의 封洞 시기는 다수 학자들이 고증한 바 西夏시대로 인정되고 그것의 발견은 지금부터 겨우 100년 전이다. 또 敦煌本『傷寒論』에 대한 연구는 겨우 50년 정도이며, 진지하게 연구되고 아울러 성과를 얻은 것은 겨우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元, 明, 清代에 『傷寒論』을 연구한 수많은 名人들은 모두 敦煌本『傷寒論』을 미처 보지 못하였으므로 敦煌本『傷寒論』을 연구하는 것은 元, 明, 清代의 수많은 학자들의 모호한 관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들이 현재 『傷寒論』을 연구하는 것이 元, 明, 清代의 학자들 보다 많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일부분의 사료이며, 그 관점 또한 많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당연히 논점도 보다 명확하다⁴²⁾.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은 漢代에 세상에 나온 뒤 兵火洗劫을 거쳐 散佚되었고, 晉·王叔和가 일찍이 收集, 編次하였으며, 宋代에 이르러 林億 등이 정리하여 『傷寒論』, 『金匱要略方論』, 『金匱玉函經』 3책으로 分編하였다. 金·成無己는 맨 처음 『傷寒論』에 체계적으로 주석을 해서 『註解傷寒論』을 撰하였다. 다만 宋本은 또한 散佚되어 현존하는 것은 明清代의 刻本이다. 敦煌殘卷과 明·趙開美가 復刻한 宋本『傷寒論』(重慶人民出版社, 1956, 이하 『註解』로 간칭), 그리고 淸康熙 丙申年의 起秀堂 刻本인 『金匱玉函經』(人民衛生出版社, 1955, 이하 『玉函』으로 간칭)으로 상호 교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敦煌卷이 세 판본과 의미가 다른 경우

敦煌卷	『傷寒』, 『註解』, 『玉函』
形寒而冷, 此爲進. 人凉身和 少陰脈弦沉 浮脈反微數, 氣獨留, 心中則飢, 邪熱殺穀, 朝暮發渴. 其脈續不解 日重臉除 胃氣竭者, 其人卽噦	形寒而冷, 此三焦傷也. 身凉和 少陰脈弦而浮 今脈反浮, 其數改微, 邪氣獨留, 心中則飢, 邪熱不殺穀, 潮熱發渴. 其脈獨不解 日重, 臉內際黃者 胃氣竭者, 脈滑則爲噦

② 敦煌卷과 『玉函』이 서로 비슷하고, 『傷寒』, 『註解』에는 빠져 있는 경우

嘔嘔如吹榆莢, 名曰數.

趺脈微澁, 少陰反堅. 微卽下逆, 則煩燥, 少陰寒者, 溲卽爲難. 汗出在頭, 穀氣爲下. 溲難者愈微溲. 不令汗出; 甚者, 遂不得便, 煩逆, 鼻鳴, 上竭下虛, 不得溲通.

脈虛而不吐下, 發汗, 其面反有熱合色, 欲解, 不能汗出, 其身必痒.

趺陽脈浮而微, 浮則爲虛, 微卽汗出.

③ 敦煌卷과 『玉函』은 같은데, 『傷寒』, 『註解』는 틀린 경우

敦煌卷, 『玉函』	『傷寒』, 『註解』
寒密相薄, 脈卽爲革 而反滑數者, 故知當 尿膿也 緊去人安, 此爲欲解	此名爲革 尿膿 入安

④ 敦煌卷과 『傷寒』은 같고 『玉函』이 다른 경우

敦煌卷, 『傷寒』	『註解』, 『玉函』
本數脈動脾 發熱, 項強, 瘕瘳	脾脈本緩, 今數脈動脾 發熱, 項強

⑤ 敦煌卷과 『玉函』, 『傷寒』은 같고, 『註解』는 틀린 경우

敦煌卷, 『傷寒』, 『玉函』	『註解』
營氣微, 加燒針, 留不行 脈病, 欲知愈不, 何以別之?	血流不行 病脈

41) 叢春雨. 敦煌中醫藥學及其文獻價值. 絲綢之路. 1996. (4).
42)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6.

⑥ 敦煌卷과 기타 세 판본이 아직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경우

敦煌卷	『傷寒』, 『玉函』, 『注解』
立夏脈浮 其面熱而赤戴陽 清邪中上, 名曰渾; 濁邪中下, 名曰繁. 足逆而冷, 狂熱妄出,	立夏脈洪大 面熱赤而戰揚者 清邪中上, 名曰潔; 濁邪中下, 名曰渾. 足膝逆冷, 便溺妄出,

아직 돈황 필사본에서 錯誤, 漏落, 衍文된 곳이 약 10여 곳인데, 생략하기로 한다⁴³⁾.

위에서 설명한 상호 교정으로부터, 敦煌殘卷은 宋代에 整理, 編次하기 전의 『傷寒論』 사본으로, 현재 볼 수 있는 최초의 『傷寒論』 原卷 필사본이며, 따라서 우리들은 『傷寒雜病論』의 원형을 대략 볼 수 있고, 또한, 宋代에 정리할 당시 增刪한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敦煌殘卷은 현존하는 『金匱玉函經』, 『傷寒論』, 『注解傷寒論』을 校勘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내용들은 현재 판본에서 빠진 것이며, 혹 현재 판본에 비해 우수하여 귀중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⁴⁴⁾.

둘째, 『傷寒論』의 판본이 다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위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敦煌本 『傷寒論』은 일부의 독립적인 『傷寒論』 판본이다. 동일한 곳에서 발견된 敦煌本 『傷寒論·辨脈法』 잔권에도 두 종류, 즉, S·202와 P·3287이 있다. 단지 필사한 종이의 길이, 필법 및 내용으로만 봐도, 이 두 잔권은 완전히 서로 같지는 않아서 敦煌本 『傷寒論·辨脈法』은 두 개의 다른 『傷寒論』 판본을 필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필사한 원판본이 어느 시기에 지어 졌는지는 이미 고증할 방법이 없지만 두 개의 두루마리에 필사한 것으로 볼 때, 당시에 이미 적어도 두 종류의 『傷寒論』 판본이 유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 발견된 『康平本傷寒論』과 『康治本傷寒論』 그리고 『唐本傷寒論』, 『高繼衝傷寒論』, 『金匱玉函經』

등은 모두 장중경이 『傷寒論』을 완성한 후에 산질이 비교적 엄중하여 비록 西晉 太醫令 王叔和의 정리를 거쳤더라도 기타 판본은 여전히 유전되고 있었음을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이 매우 많은 『傷寒論』 판본을 볼 수 있는 원인이다⁴⁵⁾.

셋째, 『傷寒論·傷寒例』와 『傷寒論·辨脈法』의 작자에 대한 논란을 일부 불식 시켰다.

『辨脈法』, 『平脈法』과 『傷寒例』는 傷寒學史상 줄곧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이다. 『脈經』卷五의 『張仲景脈論』에서는 『傷寒例』 중의 일단의 문장을 직접 張仲景의 이름 아래에 두었다. 孫思邈은 『千金要方』卷九 『傷寒例第一』에서는 宋本 『傷寒例』 중의 “春氣溫和, 夏氣暑熱, 秋氣清涼, 冬氣冰冽”에서 “此則時行之氣也”까지의 한 단락의 문장 및 “傷寒之病, 逐日深淺”에서 “皆宜臨時消息制方, 及有效耳”까지의 한 단락의 문장을 『小品方』이란 이름 아래 두었고 지은이의 성명은 듣지 않았다. 宋本 『傷寒例』 중의 “夫陽盛陰虛, 汗之則死”에서 “仁者鑑茲, 能不傷楚”에 이르기까지 한 단락의 문장을 王叔和의 저술이라고 말하였다. 唐·王燾의 『外臺秘要』卷一 “諸論傷寒八家”에서는 “傷寒之病, 逐日淺深”에서 “臨病之工, 宜須兩審也”에 이르는 한 단락의 문장, “夫表和裏病, 下之而愈”에서 “仁者鑑此, 豈不通歟”까지의 한 단락의 문장, “凡兩感病俱作, 治有先後”에서 “發表以桂枝, 溫裏宜四逆”까지의 한 단락의 문장, 이렇게 모두 세 단락의 문장을 모두 王叔和의 저작이라고 말하였다. 말하자면, 『傷寒論』의 작자에 관해서는 唐代 이래로 서로 다른 관점들이 있어 와서 어떤 사람은 張仲景의 저작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王叔和의 저작이라 말하였다. 이런 종류의 논쟁은 원명 무렵 王履(서기 1332~1391?)의 『醫經溯回集』에서 더욱 명확해지게 되었다. “대저 叔和가 더해 넣은 것은 辨脈, 平脈篇과 可汗, 不可汗 등의 諸篇일 뿐이다. 그 六經病篇은 叔和가 贊辭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王履가 孫思邈, 王燾와 다른 점은 그는 『傷寒例』를 張仲景의 저작으로 생각했다는 데에 있다. 明初 洪武⁴⁶⁾ 때 薊

43) 趙健雄. 敦煌醫粹.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pp.266-268.

44) 趙健雄. 敦煌醫粹.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p.268.

45)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p.16-17.

溪 黃仲理는 『傷寒類證辨惑』을 지어 王履의 설을 더욱 부연해서 발휘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仲景의 책은 六經이 勞復으로 다다른 것일 뿐이다. 그 간에 397法, 112方이 갖추어 있어 모조리 구비되어 있고 조리가 있고 문란하지 않다.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의 3편은 叔和가 여러 책들에서 뽑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것으로 비록 간단히 仲景의 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397法 外의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때 이후로 方有執은 『傷寒論條辨』에서 『傷寒例』를 빼버렸다⁴⁷⁾. 方有執은 傷寒例를 뺀 것을 주장하면서 王淑和를 마구 비난하였고, 성무기까지 동시에 비난하였다. 그는 叔和는 가짜를 만든 원흉이고, 無己의 注解를 모호한 것이라 혼계하였다⁴⁸⁾. 喻嘉言은 『尚論篇』에서 칼날처럼 예리한 필치로 叔和를 맹렬히 비난하여 “萬歷⁴⁹⁾ 間에 方有執은 『傷寒條辨』을 지어 처음으로 叔和의 序例를 없애 버리고 尊經의 뜻을 크게 얻었다. 그러나 실수가 과격함을 면치 못하는 것은 愛禮存羊하고 골라 뽑아 논평하여 바로 잡는 것만 같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는 “序例一篇은 쓸데없는 말을 서로 연결하고 그 후에 可하고 不可한 諸篇은 오직 精髓만 남겨 놓았다. 平脈篇은 자기의 견해를 멋대로 넣어 결국 좋은 비단을 잘라 못쓰는 솜으로 꿰매어 후세를 눈멀게 하여 무엇으로도 芾絃의 영화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비난하였다. 이후, 汪琥, 柯琴 등이 그 설을 본받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辨脈法』, 『平脈法』, 『傷寒例』 세 편의 작자 및 그 시대에 관해서 여전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⁵⁰⁾.

비록 敦煌本『傷寒論』이 張仲景의 원저인지 아니면 王叔和의 정리본인지는 이미 고증할 방법은 없지만 한 가지 점은 긍정할 수 있다. 즉, 『傷寒論·傷寒例』와 『傷寒論·辨脈法』은 南北朝, 隋, 唐 시대에 이미 유전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傷寒例』와 『辨

脈法』은 成無己(明·黃仲理, 清·柯琴), 高繼衝(日本·川越正椒), 唐宋俗醫(清·曹禾)가 편입시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점을 부정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敦煌本『傷寒論·辨脈法』乙本이 필사된 시기의 하한이 남조의 제, 양보다 늦지 않은 것을 근거로 추측한다면 王淑和 정리 『傷寒論』판본과 대략 100여년 정도 거리가 있으므로 이 기간에 유전되는 2가지 王淑和 판본이 존재할 가능성은 張仲景의 2가지 판본이 유전될 가능성에 비해 적다. 따라서 張仲景의 『傷寒論』판본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극히 많기 때문에 『傷寒論』과 『辨脈法』의 작자가 張仲景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⁵¹⁾.

그러나 여전히 차후에 다시금 새로운 자료를 발견되어 유력한 좌증을 진행할 수 없다면 『辨脈法』, 『傷寒例』의 작자가 누구인가 하는 논쟁이 재현될 것이고, 또한 어떤 명확한 것이 있어서 대가가 인정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것들의 의학사상의 내용과 이론상, 실천 상 지도적 의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張仲景이 지은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가지고 재차 논쟁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⁵²⁾.

넷째, 현존 『金匱玉函經』은 僞作이 아니라 『傷寒論』의 또 다른 傳本임을 증명하였다.

『金匱玉函經』은 宋代 林億 등이 교정한 3부의 仲景書 가운데 하나로서 『傷寒論』(1065)을 먼저 교정한 뒤인 1966년에 교정되었다. 이 책은 『傷寒論』의 異本이지만 오랫동안 『金匱要略』(1067)과 같은 書物로 오해되어 왔으며, 『傷寒論』과는 서로 다르게 전래된 傳本을 시초로 성립된 책으로 생각된다. 『金匱玉函經』은 宋代의 몇몇 醫家들에 의하여 인용되었으나 元代 이후에는 별로 알려지지 못하고 몇몇 藏書家의 손에서 보존되어 오다가 清初 陳世傑에 의하여 復刊되어 日本에 전래되었으며, 1955년경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影印하여 보급하였다⁵³⁾. 현존하는 『金匱玉函經』은

46) 明의 太祖의 年號(1368~1398)

47)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p.585-586.

48) 張燦理, 『仲景著作文獻研究簡議』, 中國醫藥學報, 1992, 7(3), p.10.

49) 明代의 年號

50)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p.585-586.

51)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7.

52)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586 pp.585-586.

53) 염용하,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金匱玉函經』에 관한 文獻의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pp.11-13.

바로 陳世傑이 康熙丙申(1716년)에 何焯이 소장하던 手抄宋本 『金匱玉函經』을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陳世傑은 原本이 이미 毀損이 심하였으며 비교할 다른 版本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희귀하였다고 말하였고, 陳世傑과 何焯 모두 手抄宋本이라고만 하였지 그 原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며, 校正醫書局에서 『金匱玉函經』을 校訂한 治平3년(1066)으로부터 550년이라는 시간을 隔하고 있으므로 그 眞僞를 의심하기도 하였다⁵⁴⁾.

『金匱玉函經』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앞서 敦煌『傷寒論』殘卷 甲本(S·202)과 宋本『傷寒論』, 『金匱玉函經』, 『注解傷寒論』을 대조하여 아래와 같은 네 가지 항목이 주목할 만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① 嘔嘔如吹榆莢, 名曰數.

② 趺脈微澀, 少陰反堅, 微即下逆, 澀則煩燥. 少陰緊者, 便即爲難. 汗出在頭, 穀氣爲下. 便難者, 愈微澀, 不令汗出, 甚者遂不得便. 煩逆鼻鳴, 上竭下虛, 不得復通.

③ 脈虛而不吐, 下, 發汗, 其面反有熱, 令色欲解, 不能汗出, 其身必痒.

④ 趺陽脈浮而微, 浮則爲虛, 微則汗出.

이들은 『金匱玉函經』 중에는 있고, 宋本『傷寒論』과 『注解傷寒論』에는 없다⁵⁵⁾.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嘔嘔如吹榆莢, 名曰數

이 조문은 宋本『傷寒論』, 成本에는 모두 없고, 『金匱玉函經』卷二『辨脈第二』에 이 조문이 있는데 “脈轟轟如吹榆莢者, 名曰散也”라고 되어 있다. 비록 글자가 하나는 “數”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散”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동일한 조문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素問·平人氣象論』을 조사해보면 “平脈脈來, 厭厭轟轟, 如落榆莢, 曰肺平”이라 하였고, 林億은 注에서 “張仲景云: 秋脈藹藹如車蓋者, 名曰陽結, 春脈轟轟如吹榆莢者, 名曰數.”이라고 한즉 宋本『傷寒論』에서 이 조문을 빠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敦煌本『傷寒論』殘卷 甲本, 『金匱玉函經』, 宋本『傷

寒論』의 세 책에서 四時의 脈象을 구별하는 조문을 종합하여 고찰한다면 宋本에는 春脈, 冬脈이 빠져있고, 甲本, 『玉函』에는 단지 冬脈만이 빠져 있다.

② 趺脈微澀, 少陰反堅, 微即下逆, 則煩燥. 少陰緊者, 便即爲難. 汗出在頭, 穀氣爲下. 便難者, 愈微澀, 不令汗出, 甚者遂不得便. 煩逆鼻鳴, 上竭下虛, 不得復通.

이상 59자는 宋本, 成本에는 모두 없고, 玉函本에는 있다.

S·202는 梁이전에 유행하였는데 이 조문은 宋本에 나타나지 않고 『玉函』에 나타난다. 『玉函』 역시 틀림없이 일찍이 宋, 齊, 梁대에 유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조문은 『玉函』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던 시대를 고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③ 脈虛而不吐下發汗, 其面反有熱, 今色欲解, 不能汗出, 其身必痒.

이상 25자는 宋本, 成本에는 모두 없고, 『玉函』에는 이 조문이 있다. 이 조문 역시 『玉函』이 宋, 齊, 梁의 시대에 이미 유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④ 趺陽脈浮而微, 浮則爲虛, 微則汗出.

이상 14자는 이상 25자는 宋本, 成本에는 모두 없고, 『玉函』에는 이 조문이 있다. 이 조문 역시 『玉函』이 宋, 齊, 梁의 시대에 이미 유행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지적하면, S·202 敦煌『傷寒論』殘卷 甲本の 맨 마지막 일항, 맨 마지막 일행은 “脈散, 其人形損, 傷” 7자로 당연히 다음에 어떤 말이 더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미 유실되었다. 『玉函』의 “辨脈”을 살펴보면 이 조문은 “脈散, 其人形損, 傷寒而咳, 上氣者死” 14자로 되어 있다. 甲本 “傷”字 밑의 글자는 틀림없이 “寒而咳, 上氣者死” 7자일 것이다. 그런데 宋本『傷寒例』의 맨 나중은 “傷寒咳逆上氣, 其脈散者, 死. 謂其形損故也”라고 되어 있다. 모두 17자이다. 이것 역시 『金匱玉函經』이 梁代 以前の 傳本임을 증명한다⁵⁶⁾.

陳可冀가 “과거 어떤 사람은 진세걸이 증각한 『金匱玉函經』이 청대인의 위작이라는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믿기에 부족한 것임을 표명하였다.”라고

54) 염용하,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金匱玉函經』에 관한 文獻의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p.10.

55)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7.

56)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p.586-588.

한 것처럼 『金匱玉函經』이 『傷寒論』의 초기 전본임이 분명해졌다⁵⁷⁾.

더불어 P·3287과 宋本『傷寒論』이 일치하고, S·202와 『金匱玉函經』이 동일한 유진계통에 속한다⁵⁸⁾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괄하면, 敦煌本『傷寒論』의 발견은 『傷寒論』을 정리, 교감하는 데에 지극히 큰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傷寒論』 판본의 고증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많은 학자들의 믿기 부족한 추단 내지 잘못된 논점을 분명히 하였으므로⁵⁹⁾ 그 가치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論

1900년대 초에 敦煌 莫高窟 藏經洞에서 발견된 다량의 敦煌遺書 중 『傷寒論』 관련 서적의 명칭, 내용 및 발견 경위, 보존 현황, 필사 연대 및 교감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敦煌遺書 중 『傷寒論』 관련 서적의 범주는 좁게는 『傷寒論』 본문 관련 문서인 S·202, P·3287에 한정되고, 넓게는 『傷寒論』의 중요한 근간이 된 『湯液經法』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輔行訣藏府用藥法要』까지 포함한다.

2. S·202, P·3287은 隋唐시기 『傷寒論』 文獻의 공백을 메웠을 뿐만 아니라, 『傷寒論』을 정리, 교감하는 데에 기여 하였고, 수많은 『傷寒論』 판본의 고증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으며, 많은 학자들의 믿기 부족한 추단 내지 잘못된 논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높다.

張仲景의 『傷寒論』은 한의학사에 있어서 획기적

인 중요한 醫書이다. 그러나 초기 상실과 인쇄술의 미발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유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傳本이 있었던 까닭에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하였고, 이는 후세 『傷寒論』을 연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고, 학문적 정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었다. 이러한 논란거리를 가운데는 단순히 이론적인 천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텍스트의 원형 복원을 통해서만 본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敦煌本『傷寒論』과 같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판본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판본의 발견은 종종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敦煌本은 물론 長沙本, 桂林本, 배릉본, 康治本, 康平本 등 새로이 발견된 판본들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論文>

1. 潭眞. 試論敦煌醫學價值. 中華醫史雜誌 22권 4호. 1992. pp.224-230.
2. 范新俊, 陳蓉. 古今敦煌醫文獻論著目錄. 上海中醫藥雜誌. 1995. (5). pp.41-43.
3. 申尙玕, 金楨汎. 『傷寒雜病論』의 診斷體系에 관한 研究. 대한동의병리학회지. 1998. 12(1). pp.1-18.
4. 염용하,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金匱玉函經』에 관한 文獻의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 16(1). pp.8-13.
5. 王淑民, 龐莎莎. 敦煌吐魯番出土古本五臟論의 考察. 中華醫史雜誌. 1995. 25(1). pp.46-51.
6. 劉喜平. 敦煌古醫方的研究概況. 中成藥. 2004. 26(1). pp.8-9.
7. 李應存. 敦煌醫學中古醫方的研究與應用概況. 甘肅中醫學院學報. 2000. 17(3). pp.64-65.
8. 張燦理. 仲景著作文獻研究簡議. 中國醫藥學報. 1992. 17(3). pp.5-10.
9. 佃會. 宋以前『傷寒雜病論』의 流布研究. 山東中

57)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7.

58) 田思勝. 林億校勘『傷寒論』及其價值. 山東中醫藥大學學報. 1997. 21(1). p.64.

59)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8.

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10. 朱定華. 敦煌殘卷醫籍張仲景『五藏論』辨析. 上海中醫雜誌. 1985. (10). pp.6-9.
11. 叢春雨. “八法”与敦煌遺書古醫方. 上海中醫藥雜誌. 1997. (6). pp.38-41.
12. 叢春雨. 談敦煌古醫籍的學術成就和文獻價值. 中醫文獻雜誌. 1997. (4). pp.1-3.
13. 叢春雨. 敦煌中醫藥學及其文獻價值. 絲綢之路. 1996. (4). pp.29-30.

<單行本>

1. 유진보 著. 전인초 譯.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2003. p.27, 29, 48, 247, 257, 419. pp.52-53, 414-415, 418-419.
2. 李順保.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13, 14, 15, 16, 17, 18. pp.16-17.
3. 錢超塵. 傷寒論文獻通考. 北京. 學苑出版社. 1993. pp.582-583, 583-585, 585-586, 586-588.
4. 趙健雄. 敦煌醫粹.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8. p.265, 268. pp.266-268.
5. 叢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p.29, 38, 38.